

2026학년도 10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6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지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1	2	2	4	3	2	4	3	5	4
6	5	7	4	8	3	9	2	10	1
11	1	12	5	13	3	14	2	15	5
16	3	17	4	18	1	19	4	20	4
21	3	22	5	23	5	24	5	25	3
26	4	27	2	28	2	29	5	30	1
31	3	32	1	33	5	34	1	35	2
36	3	37	4	38	5	39	1	40	3
41	2	42	2	43	2	44	4	45	5

[화법 · 언어]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1문단의 ‘그런데 이러한 ~ 생소하게 들리시죠?’에서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발표 계획 반영 여부 판단하기

3문단의 ‘구정보와 신정보가 ~ 경우가 많습니다.’에서 구정보와 신정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특징을 나열하거나 각각의 정보를 생략했을 때의 장점을 분석해 언급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지난 시간에 ~ 대해 배웠습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청중과 함께 공유한 경험을 환기하고 있고, ‘오늘 저는 이러한 정보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에서 발표의 화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의 ‘정보성이란 ~ 뜻입니다.’에서 정보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따라서 ~ 조절해야 합니다.’에서 정보성의 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의 ‘이때 담화 상황 속에서 ~ 전해된 정보를 ‘구정보’, 청자가 새롭게 알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를 ‘신정보’라 합니다.’에서 정보를 구정보와 신정보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누가 강아지를 좋아해?”, “동생이 강아지를 좋아해.”, “동생이 무엇을 좋아해?”, “동생은 강아지를 좋아해.”, “강아지.” 등의 예시를 들어 구정보와 신정보가 문장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지금까지 ~ 살펴보았습니다.’에서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목소리를 높여) 발표를 들은 ~ 되기를 바랍니다.’에서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담화에서 정보성의 실현 양상 이해하기

①은 구정보인 ‘점심’을 생략하지 않고 보조사 ‘은’을 표지로 사용하여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④는 구정보가 포함된 목적어 ‘점심’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⑤는 격 조사 ‘가’를 결합하여 신정보 ‘시계’를 주어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④는 구정보인 ‘시침’을 주어로 드러내지 않고 생략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⑤는 부사어 ‘수리점’에서 신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

4.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 이해하기

‘도서부장’의 발화에서 논점에서 벗어난 내용을 토의자에게 지적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도서부장’은 첫 번째 발화에서 이번 겨울 방학에 학교 도서관 공간 재구성 사업이 진행된다는 토의의 배경과 ‘도서관 이용에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토의 주제를 제시하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도서부장’은 네 번째 발화에서 ‘학생 3’의 접이식 문을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 ‘한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로 긍정한 후, 공간을 나눌 때 또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해 토의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도서부장’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토의자의 의견을 종합해 ‘접이식 문으로 공간을 나누고, 공간별 특색에 맞는 조명을 설치하자’고 정리하고, 추가 의견을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도서부장’은 세 번째 발화에서 ‘학생 3’이 제시한 접이식 문이 정확히 무엇인지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B]에서 ‘학생 1’은 ‘학생 2’가 본 신문 기사에 대해 자신도 본 적이 있다고 말할 뿐, ‘학생 2’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학생 2’는 주변 친구들이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학생 1’이 말한 도서관 공간 구성의 아쉬움에 대해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2’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기존의 학습 공간을 나누어 토론 활동 공간을 마련하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B]에서 ‘학생 2’는 신문 기사에서 본 정보를 근거로 삼아 현재 도서관의 전체 조명이 지나치게 밝다는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B]에서 ‘학생 3’은 학습 공간에 개별 조명을 비치하자는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고, 동네 도서관에 방문한 경험을 근거로 삼아 공간 특색에 맞는 조명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자료 1]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 공간의 필요성과 편안한 분위기 조성 및 소음 문제 해소에 주목하고, [자료 3]에서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중요한 소재의 내구성과 공간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의 질감을 고려하여, [자료 2]의 나무 소재를 흡음재로 활용하자고 제안하였으므로 제시된 자료를 모두 활용한 의견으로 적절하다.

[문법]

7.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발농사[반농사]’에서는 교체 2회가 일어나고, ‘깃뽕히다[질뽕히다]’에서는 교체 2회, 축약 1회가 일어나고, ‘옛보다[열:뽕다]’에서는 교체 2회가 일어난다. 따라서 ‘발농사’, ‘깃뽕히다’, ‘옛보다’를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① ‘물약[물략]’에서는 첨가 1회, 교체 1회가 일어나고, ‘되찾다[되찬따]’는 교체 2회가 일어나고, ‘꽃잎[곶잎]’에서는 첨가 1회, 교체 3회가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물약[물략]’에서는 첨가 1회, 교체 1회가 일어나고, ‘깃뽕히다[질뽕히다]’에서는 교체 2회, 축약 1회가 일어나고, ‘식용유[시공뉴]’에서는 첨가 1회가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발농사[반농사]’에서는 교체 2회가 일어나고, ‘셋노랴다[샌노라타]’에서는 교체 2회, 축약 1회가 일어나고, ‘식용유[시공뉴]’에서는 첨가 1회가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홀이불[흔니불]’에서는 첨가 1회, 교체 2회가 일어나고, ‘셋노랴다[샌노라타]’에서는 교체 2회, 축약 1회가 일어나고, ‘옛보다[열:뽕다]’에서는 교체 2

회가 일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높임 표현 이해하기

㉠은 현대 국어의 ‘부처께’에 해당하므로 체언인 ‘부터’ 뒤에 부사격 조사 ‘께’에 대응하는 ‘스귀’가 쓰여야 한다. 따라서 ㉠은 ‘부터귀’가 적절하다. ㉡은 높임의 대상이 되는 ‘부처’가 객체이므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여야 한다. 따라서 ㉡은 ‘듣즈븍며’가 적절하다. ㉢은 현대 국어의 ‘스승님의’에 해당하므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유정 체언인 ‘스승님’ 뒤에 관형격 조사 ‘스’이 쓰여야 한다. 따라서 ㉢은 ‘스승님’이 적절하다.

9. [출제의도]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 이해하기

㉣는 동사 어근 ‘던지-’에 명사 파생 접미사 ‘-기’가 결합한 파생 명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는 명사 어근 ‘가위’에 명사 파생 접미사 ‘-질’이 결합한 파생 명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는 어간 ‘처리하-’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이므로 ㉢에 해당한다. ㉦는 어간 ‘관람하-’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이므로 ㉢에 해당한다. ㉧는 명사 어근 ‘장난’에 명사 파생 접미사 ‘-꾸리기’가 결합한 파생 명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예로는 ㉣가, ㉡의 예로는 ㉤와 ㉦가, ㉢의 예로는 ㉥와 ㉦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시제 문법 요소 이해하기

㉠에서는 어간 ‘말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에서는 어간 ‘먹-’과 어미 ‘-는데’ 사이에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하여,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는 어간 ‘먹-’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여,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는 어간 ‘가-’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는 어간 ‘설레-’와 어미 ‘-다’ 사이에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하여,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인문]

[11 ~ 16] <출전> (가)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나) 캐서린 헤일스, 「비사고, 인지적 비의식의 힘」

1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2문단에서 ‘생명체의 물리적, 정신적 변화를 모두 운동으로 설명’하는 ‘홉스’의 철학적 견해를 밝히고, 2문단에서 ‘생명체의 물리적 변화를 ‘생명적 운동’과 ‘의지적 운동’으로 구분’하고 4문단에서 ‘규제된 정신의 담론’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등 관련된 개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나)는 1문단에서 ‘인지’는 ‘의미와 연결되는 맥락 안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헤일스’의 철학적 견해를 밝히고 2문단에서 ‘인지의 양상을 의식적 차원과 비의식적 차원으로 나누는’ 등 관련된 개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2문단에서 ‘생명적 운동’은 ‘생명체의 정신 활동이 개입하지 않아도 일어’난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생명체의 정신적 변화’는 ‘정신 활동이 연쇄되는 운동 과정’으로 보고 ‘감각’은 ‘생명체가 외부 대상을 감각 기관으로 지각할 때 그 대상이 생명체 내부에 심상으로 나타나는 것’, ‘감각이 내부에 약하게 남은 것’을 ‘상상’이라고 하였으므로 ‘감각’한 것이 ‘상상’의

로 이어져 자유 연상에 머물러야 ‘생명적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문단에서 ‘그에게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존재로 보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1문단에서 ‘그는 과학혁명 이후 ~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운동이라는 기계론적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의지적 운동’은 ‘생명체가 말하거나 걷는 등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고 ‘생명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정신 활동이 개입’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4문단에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 ~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인간은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기보존을 향한 욕망을 안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나)에서 ㉠은 ‘핵심 의식’, ㉡은 ‘확장 의식’이다. (나)의 2문단에서 ‘확장 의식’은 ‘인지자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속적으로 인식하’는 인지 활동이며 ‘인지자는 확장 의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계획’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가)의 ‘홉스’는 2문단에서 ‘인간의 정신은 신체와 분리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인간의 정신과 몸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보는 ㉡에 동의할 것이다. (가)의 ‘홉스’는 2문단에서 ‘정신 활동도 신체에서 일어나는 운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고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그것을 움직이게 한 원인파, 공간에서 위치가 변화한 결과가 있듯 ~ 생명체의 물리적, 정신적 변화를 모두 운동으로 설명한다’고 하였으므로 ‘인간의 정신 활동’이 ‘신체 내에서 일정한 규칙 없이 나타난다’고 보는 ㉢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헤일스’는 2문단에서 ‘인지는 각 인지자가 가진 고유한 물질적 과정을 거치며 인지와 물질적 과정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인간의 정신 활동은 물질적인 신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에 동의할 것이다. (나)의 ‘헤일스’는 3문단에서 ‘인간에게 비의식적 인지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 수준에서 작동’한다고 하였고 ‘비의식적 인지가 ~ 복잡한 정보로부터 의미 있는 규칙성인 패턴을 찾아내고 이 패턴에 기반해 추론을 끌어낸다’고 하였으므로 ‘인간의 정신 활동은’ ‘신체 내에서 일정한 규칙 없이 나타난다’고 보는 ㉢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5.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나)의 ‘헤일스’는 3문단에서 ‘비의식적 인지란 의식의 개입 없이 정보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기술적 시스템은 비의식적 인지만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C가 ‘엑스레이 영상을 학습한’ 후 A 씨에게 ‘의심되는 수하물을 알’려 주었더라도 C는 비의식적 인지만 가지고 있어 의식적 차원의 인지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홉스’는 4문단에서 ‘결과에서 원인을 찾는 정신 활동’은 ‘예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원인이나 수단을 추적하는 것으로 동물에게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B가 훈련 중 보상을 받기 위해 ‘특정 물질의 냄새를 기억하는 데 성공’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은 B가 ‘간식’이라는 예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인 ‘특정 물질의 냄새를 기억하는 데 성공’하는 것을 추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홉스’는 2문단에서 ‘의지적 운동은 생명체가 말하거나 걷는 등 몸을 움직이는 운동’으로 ‘생명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정신 활동’이 개입된다고 하였으며 3

문단에서 ‘상상은 생명체에게 욕망, 혐오와 같은 ‘정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념이 숙고 끝에 ‘의지’로 이어지면 의지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B가 ‘바로 옆드’린 것을 (가)의 ‘홉스’는 ‘생명체가 말하거나 걷는 등 몸을 움직이’는 ‘의지적 운동’으로 보고 ‘상상이 정념으로 이어’진 의지적 운동’의 결과로 볼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홉스’는 4문단에서 ‘원인에서 결과를 예상하는 정신 활동’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보기>에서 ‘A 씨는 훈련이 B에게 미칠 모든 가능성을 고민’한 것은 A 씨가 ‘훈련’이 원인이 되어 B에게 ‘미칠 모든 가능성을 고민’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고려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헤일스’는 3문단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 시스템의 인지’가 ‘인간 뇌가 감당하기에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패턴을 분석해 빠르게 결과를 산출한’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인간의 인지가 더 이상 고립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적 시스템과 얹혀 정보를 처리’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A 씨가 ‘C를 활용한 후부터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은 인간이 기술적 시스템과 얹혀 정보를 처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나)의 ㉢은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다.’의 의미이므로, ㉢의 문맥적 의미를 인지의 ‘일정한 한도를 정해야’라는 의미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은 ‘눈으로 직접 보다.’의 의미이므로, ㉠의 문맥적 의미를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이라는 의미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 ② (가)의 ㉡은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의 의미이므로, ㉡의 문맥적 의미를 자신에게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으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 ④ (나)의 ㉠은 ‘바탕이나 토대를 두다.’의 의미이므로, ㉠의 문맥적 의미를 이 패턴에 ‘바탕이나 토대를 두어’라는 의미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 ⑤ (나)의 ㉢은 ‘규모나 양이 매우 크거나 많다.’의 의미이므로, ㉢의 문맥적 의미를 감당하기에 ‘규모나 양이 매우 크거나 많은’이라는 의미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

[사회]

[17 ~ 20] <출전> 이재인,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서 ‘일반적으로 면적은 지표면의 ~ 표면적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축법」에서는 지형의 경사를 ~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경사지의 대지면적은 지형의 경사를 반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주된 용도와 개발 밀도의 상한을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산정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 안전 구역 등’을 제외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공공의 편의를 위한 지상층의 부속 주차장이나 안전을 위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 면적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서 ‘두 도로의 교차각이 120° 이상이면 각각 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일반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도로가 규정된 소요 너비에 ~ 건축선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접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 건축선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5문단에서 ‘최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 경우의 층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줄어들어도 <보기>의 최대 건폐율과 최대 용적률은 동일하므로 건축물의 층수는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도로가 규정된 소요 너비에 ~ 건축선으로 한다.’고 하였다. 토지 A는 너비가 2m인 도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m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두 도로가 교차하는 ~ 각각정리라고 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 최종적으로 산정한다.’고 하였다. 토지 A는 너비가 각각 4m, 2m인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이므로 각각정리에 의해 2024년 매입 당시의 면적에 비해 최종 대지면적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대지면적에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건폐율을 곱하면 최대 건축면적이 산출’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허용된 최대 용적률 ~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좁게 설계할수록 건축물의 전체 층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과학]

[21 ~ 23] <출전>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의공학개론」

2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서 ‘망막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한 겹의 세포층인 망막색소상피’라고 하였다. 망막색소상피는 ‘망막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데, ‘망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전기 쌍극자처럼 작동하는 안구의 특성’에서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의 ‘조명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정지 전위는 망막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에서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의 ‘이러한 성질에서 비롯된 전기 신호를 눈 주위 피부에 붙인 전극으로 기록하는 기술이 안전도(EOG)이다.’에서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의 ‘안구가 정면을 향할 때는 오른쪽 전극의 전위와 왼쪽 전극의 전위가 동일하여 전위차가 나타나지 않는다’에서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2문단에서 ‘망막색소상피에서 일어나는 이온 수송은 눈을 감아도 계속되므로 정지 전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여 눈을 감아도 정지 전위가 존재함을 밝혔고, 2문단에서 ‘안구는 앞쪽이 양극이고 뒤쪽이 음극인 ~ 이 전위차를 정지 전위라고 한다.’에서 정지 전위의 전기적 성질에 대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눈을 감아도 정지 전위는 그대로 존재하여 안구의 운동으로 인한 전기 신호를 기록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두 전극 사이에서의 ‘전위차의 크기는 측정 시점의 정지 전위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하였으며, ‘정면 기준 좌우 각각 약 30° 이내에서는 안구의 회전 각도의 크기에도 비례한다’고 하였다. ㉔와 ㉕는 정지 전위가 같고, 안구의 회전 각도도 각각 20°로 같으므로 두 시점의 전위차의 크기는 같다. 따라서 ㉔가 ㉕보다 빛에 노출된 시간이 짧으므로, ㉔에서의 전극 사이 전위차의 크기가 ㉕에서보다 작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㉑ 3문단에서 안구가 ‘왼쪽으로 돌 때는 왼쪽 전극의 전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㉑는 안구를 왼쪽으로 20° 회전시킨 시점으로, ㉑에서는 왼쪽 전극의 전위가 오른쪽 전극의 전위보다 높게 기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㉒ 5문단에서 ‘빛에 노출되면 빛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반응하고, 그 반응으로 인해 망막색소상피에서 일어나는 이온 수송이 더 활발해진다. 그러면 전하의 치우침이 커져 정지 전위가 커진다.’라고 하였다. ㉑는 명조건, ㉒는 암조건의 시점이며 ㉑의 정지 전위가 ㉒보다 높다. 따라서 ㉑에서 측정된 정지 전위가 ㉒에서보다 높은 것은 망막색소상피의 이온 수송으로 전하의 치우침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㉓ 5문단에서 ‘명조건에서의 정지 전위 최댓값을 암조건에서의 최솟값으로 나눈 값을 아텐비라 하는데, 망막색소상피의 기능이 정상이면 대략 1.8 이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㉑의 정지 전위는 명조건 최댓값, ㉒의 정지 전위는 암조건 최솟값이다. ㉑의 정지 전위를 ㉒의 정지 전위로 나눈 값인 2는 아텐비 정상 기준인 ‘대략 1.8 이상’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값만으로는 망막색소상피의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절하다. ㉔ 3문단에서 ‘정면 기준 좌우 각각 약 30° 이내에서는 안구의 회전 각도의 크기에도 비례한다’라고 하였다. ㉔와 ㉒는 정지 전위가 같고 회전 각도는 ㉔가 ㉒보다 크므로, 전극 사이 전위차의 크기가 ㉔에서가 ㉒에서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독서 · 작문]

[24 ~ 27] <출전> (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 (나) 김명수 외, 「정책평가론」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나)의 3문단에서 정책 혁신이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는 내용은 설명하고 있으나 새로운 정책의 종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가)의 1문단에서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인식이 커지면서 등장했다.’라고 기후 정의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㉒ (가)의 3문단에서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는~원칙을 강조한다.’라고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강조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㉓ (나)의 1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정책 과정은~이루어진다.’라고 정책 과정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㉔ (나)의 1문단에서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 과정은~영향을 미친다.’라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책 과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다)의 2문단에서 ‘구·군별로 무더위쉼터의 수용 인원 격차가 크다’는 것과 3문단에서 ‘접근성 불편이나 야간 미운영 등 실제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취약 계층의 개선 요구 사항’은 언급하지만 수용 인원 격차 해소를 요구한 설문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

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다)의 1문단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불평등을 야기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㉒ (다)의 2문단에서 ‘우선, 무더위쉼터의 도움을 받는~측면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또한, 무더위 쉼터를~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㉔ (다)의 4문단에서 ‘물론, 정책 변동으로 인해~반대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㉕ (다)의 1문단에서 ‘나는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한~필요하다고 생각한다.’와 5문단에서 ‘그러므로 기존의 무더위쉼터~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읽기 방법 파악하기

(나)의 1문단에서 ‘사회 문제의 해결을~의미 있는 절차이다.’라고 한 부분과 4문단에서 ‘정책의 개선은~이루어진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정책의 개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의 5문단에서 ‘그러므로 기존의 무더위쉼터 정책에 대한~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한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개선된~실현해야 한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다)가 (나)의 정책의 개선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㉑ (가)의 1문단에서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커지면서 등장했다.’라고 한 것을 통해 기후 정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3문단에서 ‘따라서 기후 변화 대응을~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법과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㉒ (가)의 2문단에서 ‘분배적 기후 정의는~바로 잡아야 한다는 개념이다.’라고 한 것을 통해 분배적 기후 정의의 핵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후 변화를 유발한 정도와 관계없이 기후 변화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㉓ (가)의 2문단에서 ‘이에 비해 절차적 기후 정의는~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라고 한 것을 통해 절차적 기후 정의에서 강조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기후 정책의 공정한 설계와 집행을 위해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중시하는 관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㉕ (나)의 3문단에서 ‘정책 변동은~경우가 많다.’라고 한 것과 ‘이 둘은~점에서는 비슷하다.’라고 한 것에서 정책 변동 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책 승계와 정책 유지 모두 기존 정책 목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7.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의 1문단에서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와~커지면서 등장했다.’라고 한 것을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보기>에서 ‘금전적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고려해야 한다’라고 한 것을 통해 건강과 같은 비금전적 가치를 정책 효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㉑ (가)의 1문단에서 ‘기후 정의는~바라보는 개념이다.’라고 한 것을 통해 기후 변화가 사회 구조적 문제와 관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보기>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여~고려해야 한다.’라고 한 것을 통해 공공 정책이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야 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㉓ (나)의 2문단에서 ‘정책 평가는~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한 것을 통해 정책 평가에는 정책의 실패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검토하는 것까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보기>에서 ‘정책 평가 방법 중~평가하는 방법이다.’라고 한 것을 통해 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한 후 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㉔ (나)의 4문단에서 ‘정책의 개선은~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을 통해 정책 평가의 주요 목적이 정책 개선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보기>에서 ‘정책 평가 방법 중~평가하는 방법이다.’라고 한 것을 통해 정책으로 얻은 편익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변동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㉕ (나)의 1문단에서 ‘현실에서~영향을 미친다.’라고 한 것을 통해 정책 과정을 이루는 절차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보기>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여~고려해야 한다.’라고 한 것을 통해 정책 집행으로 발생한 비용이 크다면 금전적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효과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작문]

2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1문단의 ‘아픈 기억을 잊게 해 주고’나 ‘내 마음에 용기를 주었다.’에서 탐조 활동이 갖는 개인적 차원의 장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사회적 차원의 장점과 비교하여 서술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1문단에서 “새를 관찰하는 탐조 활동은~용기를 주었다.”라는 책의 구절을 인용하며 탐조 활동에 참여한 계기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㉓ 2문단의 ‘큰 소리는 물론이고 지나치게 눈에 띄는 색상이나 강한 향기도 새들의 감각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알게 되었다.’에서 화려한 색의 복장이나 향수 사용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인과의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㉔ 3문단의 ‘새들을 관찰하던 중, 갈색 머리와 회색 몸통에 긴 꼬지깃을 가진 고방오리 한 마리를 보았다.’에서 탐조 과정에서 관찰한 고방오리의 외양을 묘사의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㉕ 4문단의 ‘특히 굴뚝새, 흰목물떼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의 작은 새들도~생겨났다.’에서 하천 근처 숲에서 확인한 새들을 열거의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양상 이해하기

4문단의 ‘나도 언젠가 저 새들처럼 내게 어울리는 자리를 만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가 생겨났다.’에서 새들의 모습을 자신과 연결 짓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자신이 겪은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겠다는 다짐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2문단의 ‘사람의 옷이나 냄새가~생각이 들었다.’에서 탐조 과정에서 새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㉒ 3문단의 ‘그 모습이 마치~지켜보았다.’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목표를 이루지 못한 자신의 모습과 고방오리의 모습이 유사해 보인다는 인식을 드러냈으므로 적절하다. ㉓ 3문단의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돌이켜 보게 되었다.’에서 과거의 실수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그동안의 자신에 대해 성찰한 바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㉔ 4문단의 ‘지금 눈앞에 있는~안정감이 찾아왔다.’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 회미해지면서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왔다는 정서를 표현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교쳐쓰기에 반영된 조언 파악하기

‘초고’의 마지막 문단에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들 때문에 겪는 피해를 탐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막상 하고 나니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친구들에게 탐조 활동 참여를 권해 주고 싶

다.’를 ‘과거의 힘든 기억으로 괴로워하고 있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자신감이 떨어진 친구들에게 탐조 활동 참여를 권해 주고 싶다.’라고 고쳐 씌으로써 활동 참여를 권하고 싶은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 소설]

[31 ~ 33] <출전> 작가 미상, 「취연전」

31. [출제의도] 작품 내용 이해하기

어사는 태수에게 ‘무슨 의논할 일이 있으니 죽림촌에 대령하라.’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후 태수를 만나 ‘나의 전후사연이 이러이러하므로 그대를 불렀으니, 들어가 말하면 행여나 통할 듯하므로 한번 들어가서 말하여 보라.’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사가 태수를 통해 소저와 만날 것을 기대하며 태수에게 죽림촌에 대령하라고 지시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집안사람들이 부인을 염습하여 ~ 소저는 염습도 못하였다.’에서 집안사람들이 정 부인을 염습하여 선산에 안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유모가 들고 기뻐했다가 ~ 유모가 들어가 울면서 말했다.’에서 밤에 초롱에 불을 붙여 들고서 소저의 방에 찾아온 것은 유모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하관은 이곳의 태수이온데 ~ 들어오기를 청하여 대면하시옵소서.’에서 어명을 받고 내려온 것은 태수가 아니라 어사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집이 내려가서 ~ 수이 돌아오라.’에서 황제가 자신의 원정이 아닌 경의 원정을 풀기 위해서 예관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의 특징 파악하기

[A]에서는 상대방에게 ‘성주’라는 직책에 맞는 의무를 언급하며 ‘돌아가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과 정치하는 일’을 ‘밝게’ 하라고 훈계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이 ‘원정지귀’가 된 것이 ‘불민한 내 몸 때문’이라며 책임을 인정하고 ‘한심하고도 허망’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나 같은 원정을 ~ 나라의 명령을 거역하겠는가!’에서 유 소저가 황제의 명령으로 온 예관의 말에 순응하며 어사를 만나 원정을 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 소저가 불명예를 해소하고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이러한 일이 있는 후 ~ 견딜 수 없어 사방으로 떠나갔다.’에서 공동체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비현실적 존재인 유 소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함미는 계속하여 ~ 황천으로 돌아가 원혼이 된 말을 하고’에서 유 소저가 누명을 쓰고 겪게 된 시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소저야, 일어나라 ~ 일어나서 살피보라!’에서 유모가 죽은자인 소저와 산자인 어사를 매개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어사가 민망하여 ~ 황제가 보시고 반겨하면서 말했다’에서 어사가 유 소저의 사연을 나라에 상소한 것을 통해 유 소저의 억울함이 알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 · 고전수필]

[34 ~ 38] <출전> (가) 작가 미상, 「단장이별곡」/ (나) 노궁, 「상해」

34.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는 ‘좌불안석하는 중에 여취여광하는구나’ 등에서, (나)는 ‘아!’ 등에서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

자와 글쓴이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B]에서 화자는 ‘아회야 술 부어라’라고 한 뒤 혼자 ‘일이삼배 먹은 후에’ 취흥에 못 이겨 잠이 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아회’와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고조되는 흥취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는 ‘두견’이 ‘슬피 우’는 소리에 ‘구곡간장 다 녹는다’며 화자의 깊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C]는 소식을 전해 줄 ‘홍안’조차 오지 않는다면 소통 수단의 부재를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D]는 ‘꿈’이 ‘허사인’ 것을 알면서도 ‘행여 오는가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E]는 ‘청삽사리’에게 말을 건네며 ‘깃지 말라 천만당부’한 약속을 어기고 꿈을 깨운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가)의 화자는 ㉠을 ‘열고 바라보’며 ‘우리 임’의 부재를 확인하고 있고, (나)의 글쓴이는 ㉡이 ‘흰히 밝아 오’는 것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작품 감상 비평하기

(나)에서 작가는 ‘오늘 밤에도’ ‘몇천 몇만 명’의 사람들이 세속적 욕망을 떠올리더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실현된 것 없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온다고 하고 있을 뿐, 세속적 욕망이 인간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활처럼 몸을 구부려 ~ 갖가지 일이 떠올랐다’와 ‘위원군에서 귀양살이하며’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어린 자식 놈들 서캐와 이는 내가 손수 빗질해서 잡고’와 같이 평범한 일상의 ‘작은 일’을 떠올리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작가는 자신의 생각에서 나아가 ‘몇천 몇만 명의 사람들’ 역시 ‘이익을 쟁길 생각’과 ‘명예를 거머쥌 생각’을 할 것이라고 서술하며 인간의 보편적 욕망으로 생각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염라대왕이 보낸 저승 차사’가 이르는 상황을 가정하여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나’가 꿈속에서 임을 만나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임이 부재한 현실과 상반된 상황 속에서 얻는 일시적 위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에서 ‘제 본때에 어울리는 옷가지를 걸친다’는 것은 현실에서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나’가 현실과 상반된 상황 속에서 얻는 위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화자가 꿈에서 깬 후 ‘맺힌 수심’을 풀지 못하는 것은, <보기>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저승 차사’를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의 수천 가지 생각, 수만 가지 상념’을 남겨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 ‘인간이 필경 맞닥뜨릴 종착지’라고 하였고, ‘인생이 그러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보기>의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는 모습’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③ (가)에서 임의 부재로 인해 ‘마음 둘 데 없’는 상황과 (나)에서 일상과 단절되어 ‘변방 고을에서’ ‘복역’하는 상황은 <보기>의 ‘부정적 현실’에 처한 ‘나’의 모습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 꿈에서 깨 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과 (나)에서 상상이 ‘도무지 실현된 것이라곤 전혀 없’음을 자각하는 것은, <보기>의 ‘현실로 돌아와 변하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현대 소설]

[39 ~ 42] <출전> 이범선, 「냉혈동물」

3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주인공 ‘김철’이 사변 후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먼저 서술되어 있다. 그 이유가 피난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며 부를 축적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작품 속 대화의 맥락 이해하기

㉠은 상대방의 ‘사정’을 ‘알 필요가 없’으며 다만 ‘얼마’가 ‘필요’한지 거래 계약 액수만을 궁금해 하는 김철의 말이며, ㉡은 김철의 의도에 따라 결국 이자를 내야 하는 ‘김 선생님의 것을 한 달만’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원이 한 말이다. 따라서 ㉠은 ㉡에 드러나는 사원의 요청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유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는 ‘회사 돈을 좀 가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원의 바람이 드러난 말이며, ㉠은 ‘집사람이 해산’을 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김철에게 이야기하려는 사원의 말이다. 따라서 ㉠은 ㉡에 드러나는 사원의 바람을 김철이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동기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집사람이 해산’을 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내포된 사원의 말이며, ㉠은 상대방이 처한 ‘사정’을 ‘제가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저 ‘얼마’가 ‘필요’한지 묻는 김철의 말이다. 따라서 ㉠은 ㉠에 드러난 상대의 요청 배경이 김철 자신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회사 돈을 좀 가불해 주’기를 바란다는 사원의 입장이 담긴 말이며, ㉢은 회사의 돈을 가불하기 위해서는 ‘사장님의 도장을 받아다’ 달라고 김철이 사원에게 요구하는 말이다. 따라서 ㉢은 ㉢에 드러난 사원의 요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장님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사장님의 도장을 받아다 주’어야 회사 돈을 가불해 줄 수 있다는 김철의 말이며, ㉢은 ‘사장님의 도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며 ‘김 선생님의 것을 한 달만’ 빌리겠다고 하는 사원의 말이다. 따라서 ㉢은 ㉢에 담긴 김철의 요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임을 생각한 사원이 결국 ‘일 할’ ‘이자’를 내야 하는 김철의 돈을 불가피하게 빌리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관용적 표현의 맥락상 의미 이해하기

김철이 피난 때 ‘무엇이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 ‘넝마 장사’, ‘미군 부대에서 훔쳐 내오는 물건을 도매’로 판 것, ‘휘발유가 고갈되었을 때 한뿔’을 본 것, ‘아편 장사’와 ‘밀수’를 통해 부를 축적한 후에 ‘어느 선에서 모든 일에서 딱 손을 끊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단호하게 중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 ‘그’가 ‘김철 귀하’라고 적힌 ‘종이’를 내미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돈을 빌려 이자를 내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지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그’가 ‘훔쳐 내오는 물건’을 ‘도매’로 ‘팔’거나 ‘밀수’를 하는 것은, 피난 상황에서 배신의 상처를 경험한 이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여 자신의 이익을 쟁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그’가 ‘피가 쏴뿔 열었’다는 ‘별의

별 소리'에 대해 '들은 척도 안'하는 것은, 타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말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수위 할아버지'가 '어제 누군가가 하던 말이 정말이었'다며 '고약한 인심들'이라고 말한 내용은, '피난 트럭'이 '좁을 테니까 약속 시간보다는 한 두어 시간 일찍 떠나자는 것'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버려두'겠다고 한 말과 연관되며 이러한 모습은 타인의 안위에는 신경 쓰지 않고 각자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태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그'가 '회사 부산 지점'에 내려가 '숙소'를 '찾아갔'으나 '대문 밖에서 그대로 돌아서'며 '눈이 자꾸만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말로는 '안됐'다고 하지만 자신과 가족을 받아주지 않는 비정한 현실로 인해 상처를 받은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시]

[43 ~ 45] <출전> (나) 김광균, 「창백한 산보」/
(다) 김명인, 「낮은 집」

43.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나)는 1연의 ‘찾아 나간다’ 등에 나타난 현재형 어미를 통해, (다)는 1연의 ‘틀어 앉는다’ 등에 나타난 현재형 어미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에서 화자는 ‘금 공작을 수놓은 옛 생각’을 떠올리는 상황에서 ‘쉽기도 하다’는 정서를 드러내고, ㉡에서 화자는 ‘뻗속으로 옮겨 앉은 집’을 ‘허물지 못’하고 ‘퇴락을 안고 살아가’는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의 6연에서 ‘푸른 하늘’이 ‘희미하게 빛’난다고 표현한 것은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하고, (다)의 2연에서 ‘나들이’가 ‘쓰디쓴 고해만은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미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나)의 화자는 ‘푸른 하늘’을 ‘조각난 나의 감정의 한 개의 슬픈 건판’으로 표현하고 있어 부정적 현실이 드러나 있지만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형상화하고 있지 않고, (다)의 화자는 ‘옛 등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부정적 현실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형상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5연에서 ‘저녁 안개’가 ‘기폭인 양 내려 덮인’ 모습에서 하강 이미지가 나타나며, 기폭을 ‘고달’프다고 표현한 것에서 화자의 고단한 심정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다)의 1연에서 ‘꿈속’에 ‘팔아버린 지 이태 더 지난 옛집’이 ‘요즘 들어 부쩍’ ‘틀어 앉’는 것에서, 화자가 현재 머무르기 어려운 과거의 장소인 옛집을 환기하는 데 꿈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다)의 3연에서 ‘집 한 채’와 ‘마주 쳐다보며 서로에게 잔술을 내밀지만 혼자 음미하는’ 것에서, 의인화된 집 한 채를 대하며 느끼는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5연에서 ‘외줄기 길가에’서 ‘희미한 축수를 저어 황혼을 부르’는 ‘양상한 나뭇가지’의 모습과, (다)의 2연에서 ‘그 먼 곳’에 있는 ‘세간’의 모습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구성된 시적 장면이므로 적절하다.